

사찰음식서 자연과 가족 소중함 배워

사찰 음식 시연회 지역민에게 큰 '호응'

먹거리의 안전성 논란이 거세지는 요즘 사찰 음식이 그 어느때보다 주목 받고 있다. 이제 사찰음식은 먹을거리 위협에 놓인 대중들에게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주는 열쇠가 되고 있다. 진관사의 '마을(村)과 마음(心)'이 어울리는 진관사 사찰음식 시연회'와 서산 부석사의 '사찰음식 잔치'는 전통 음식의 소중함과 환경을 일깨우는 새로운 문화 포교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진관사(주지 계호 스님)에서 개최된 시연회는 사찰음식 체험과 시식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사찰음식을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번 시연회가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인근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사찰을 찾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장 법혜 스님은 "인근 주민들을 통해 체험 가족을 모집했어요. 아빠들이 가정에서 요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40세 이하 아빠와 자녀 200여 명을 초대했죠. 연잎밥과 풍족을 직접 만들어 보며 전통 음식과 환경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초청 가족은 물론 인근 주민 7백 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일으킨 이번 행사는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 회원들이 주축이 됐다. 회원들은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선보이며 사찰 음식 홍보에 적극 나선 것이다.

진관사 사찰 음식 연구소는 지난 2010년 7월 개소해 현재 4개 반을 운영하며 사찰 음식 전수와 보존·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진관사는 G20 정상회담 서울 개최 당시 종교지도자를 초대해 사찰음식 시연대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후 경제인-대사관 부인 교류 모임인 가든 클럽 회원들을 초청해 시연회를 열기도 해 사찰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 스님)는 지난 6월 9일 사찰음식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사찰음식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

진관사, 아빠와 자녀 등 체험 실습 서산 부석사, '공양청' 잔치 열어

사에는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시식회, 숙인절미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사찰음식 잔치 역시 부석사 내 사찰음식 연구 모임 '공양청' 회원들이 주축이 됐다.

주경 스님은 "서산에 전국 체전이 열리면서 사찰 음식을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공양청 회원들도 이번 행사를 통해 큰 자부심을 얻은 듯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공양청은 매달 강사를 초빙해 강연을 갖



사찰이 지역민을 위한 사찰음식 축제를 개최해 자연 음식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6일 개최된 진관사 사찰음식 시연회 장면.

는 등 사찰음식 전수와 보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 모임은 주지 주경 스님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주경 스님은 "예전에 비해 절집이 공양주들도 자주 바뀌고 세대로 바뀌면서 고유의 음식맛을 잃어버리고 있다. 젊은 신도들이 사찰 음식 고유의 맛을 이을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공양청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마다 보니 강사 섭외 등 많은 어

려움이 있지만 가정 선생님, 조리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조인해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사찰음식 축제는 지역민과 함께하며 우리 식탁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 사찰이 대중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사찰의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반갑고 의미 깊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시선은 즐겁고 마음은 '행복'

리모델링으로 태어난 템플스테이정보센터 '홍보관'

요즘 견지동을 오가는 사람이면 동자승, 전통 등, 나무 빗살 창틀, 기왓장 등 전통 무늬와 소품으로 꾸며진 이 공간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정보센터 1층 홍보관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전시는 역시 닥종이 인형으로 만든 동자승 시리즈다. 책 읽고 축구하고 연잎을 들고 합장하는 각각의 동자승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를 머금게 한다. 템플스테이 체험을 재현한 인형도 흥미롭다. 스님과 함께 발우공양을 하면서 한 방울의 물과 한 톨의 쌀에도 감사함을 배우는 이 장면은 템플스테이에 대한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불교용품 판매 코너도 주목할 만하다. 유리 전열대에는 액자 작품은 물론 나전 연필, 향꽃이, 향로, 단주, 묵어울쥬서 세트, 불교액세서리 등 30여 종의 불교용품이 진열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다. 불교문화사업단 홍민석 팀장은 "기존 커피숍과 안내센터 등으로 구성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 했다. 커피숍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지만 정작 한국 문화와 불교 문화를 알리는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모호한 점이 있었다. 이번 공사를 기점으로 템플스테이 등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



템플스테이 홍보관의 동자승 시리즈

전문분야 인테리어로 전시 강화 외국 관광객 상담 부스도 마련

고자 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번 리모델링의 특징은 전시와 함께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구성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상담코너에는 조계종 국제불교 소식지 '세계일화' 편집장 진서 스님이 외국인들의 상담을 도맡고 있다.

이제, 7월 본격 가을에 들어가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은 >템플라이프 개발 > 불교문화용품개발 등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히말라야의 품에서 찾은 '환희심' 화폭에 펼쳐

강찬모 개인전 '공평갤러리서 수차례 네팔 여행하며 영감 얻어'

히말라야 설산 질푸른 하늘에 담이 울랐다. 어느새 주변으로 몽글몽글 별들이 둘러싸면 세상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듯 따뜻하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는 우주의 중심이 되고 환희의 세계가 된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진리의 세계를 찾아 헤매던 자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밝고 주변은 온통 환하다. 세상의 막다른 골목에서 찾은 평화의 기쁨은 그렇게 화폭에 촘촘히 수놓아져 세상을 밝힌다.

오랜 시간 히말라야를 찾아 온 강찬모 작가의 개인전이 7월 3일까지 공평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히말라야와 자연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 60점이 전

시된다. 강 씨가 히말라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다. 늘 부처님 말씀을 몸소 체득하며 살아가던 그는 네팔이 그리웠고 히말라야가 무작정 보고 싶었다.

그렇게 톰비니 등 부처님 7대 성지를 여행했고 히말라야를 찾았다. 그는 단박에 이곳이 바로 부처님 품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 작가는 "무작정 네팔을 찾아 히말라야와 톰비니 등을 여행하며 알 수 없는 환희심을 느꼈다. 이후 수차례 히말라야를 찾으며 그 느낌을 작품에 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한다.

이제 히말라야는 그에게 있어 작품 세계의 원천이자 영감의 근원이 되었다. 그렇게 매년 네팔을 찾으며 그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색채의 추상화를 통해 부처의 세계에 다가가고 있었다. 이번 전시에는 '빛의



강찬모 작 '환희심'. 작가는 7월 3일까지 공평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사람', '산의 울림' '별이 가득하니 사람이 끝이 없어라' '환희심' 등 히말라야와 자연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태양을 주변으로 물고기 잠자리 나비 사람 등을 표현한 '환희심'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우주의 질서를 강렬한 색채로 표현했다.

강 씨는 올해 10월과 12월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히말라야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충만한 감사와 그리움을 작품에 담을 것이다.

(02)3210-0071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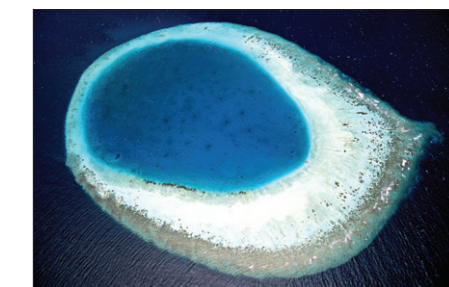
지구에 대한 성찰 '렌즈'에 담다

안 아르튀스 베르트랑의 특별전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항공사진작가 안 아르튀스 베르트랑의 특별전이 8월 26일까지 대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다. '하늘에서 본 지구-It's My Hom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지난 20여년간 하늘여행을 통해 렌즈에 담은 사진 작품 220여 점이 선보인다.

작가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생명(동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사진과 비디오 등 미디어아트를 통해 전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구 사진과 동물 사진은 물론 세계 70개국 항공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한 영화 '홈(HOME)'도 상영돼 눈길을 끈다.

또한 지난 6년간 한국 상공을 비행하며 촬영한 사진도 출품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우리 땅의 모습 30여 점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이어



몰디브의 눈

전 문화부 장관의 글과 어우러진 이야기가 있는 전시도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를 주최하는 하늘에서 본 지구 조직위원회는 "안의 사진은 사진작가나 관광객이 아니라 말 없는 지구가 말하게 하고 동물들이 말하게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생명들의 합창은 어느덧 우리 인간과 지구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

도심포교당의 수행일선에서 들려주는 평범한 삶의 지혜!

죽었다고 여겼던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렇게 아픔을 꺼안을 수 있다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 아닌 것을 고통으로, 불행 아닌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스님은 1988년 통도사로 출가, 1989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활산 성수선사에게 선을 배우고 문경 봉암사, 묘관음사, 북천암, 개심사, 정혜사 등 제방선원과 사랑도 지리산 등지의 토굴에서 정진하였다. 마곡사 공주포교당 지도법사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현재 대전 구룡선원 주지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에는 금강경해설서 '꽃을 시샘하지 않는다'가 있다.

구룡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큐

성지순례

마하연투어

고품격 여름방학 특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발가능)

양곤 바간 해호 6일 요금문의

출발일 : 7월 23일, 7월 25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2일

- 미얀마 성지순례 * 고품격 상품 *
 - 일 정 : 양곤 바간 해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해호 7일 210만원
 - *전 일정 특급호텔(세도나, 프래저, 후펜) 가이드 기사 팀, 호스카(마차), 업그레이드 식사
- 중국 성지순례
 -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7일 129만원 / 6월~7월
 -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